

석주(石洲) 윤영자 연구

A Study of 'Seokju' Youn, Young-ja

주저자

최지영 (Choi, Ji-yeong) chjyeong22@gmail.com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섬유미술 박사

Ph.D of Design and Craft, Hongik University

교신저자

정경연 (Chung, Kyoung-yeon) owon55@hanmail.net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Professor of Textile Art and Fashion Desing,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20.06.10	심사일	2020.07.22	게재확정일	2020.07.27
-----	------------	-----	------------	-------	------------

본 연구논문은 2019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석주(石洲) 윤영자 연구

A Study of 'Seokju' Youn, Young-ja

목 차

1. 서론
 - 1-1. 연구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본론
 - 2-1. 한국 현대 조각
 - 2-2. 윤영자의 생애와 작품분석
 - 2-2-1. 윤영자의 생애
 - 2-2-2. 작품분석
 - 2-2-2-1. 초기
 - 2-2-2-2. 중기
 - 2-2-2-3. 후기
3.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Gookjeon> or the Korean National Exhibition produced an important artist in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art. Modern sculpture art started from figuration, then abstraction was introduced, and it further developed into various aspects. Especially in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art history after the '50s '60s and '70s, radical changes in sculpture art is prominently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art history can also be seen through the study of Youn Young-ja.

Despite various constraints as a female sculptor, Youn Young-ja(1924-2016) led the contemporary Korean sculpture art. Youn Young-ja built her theme around love, motherhood, women, and joy. In Korean contemporary women's art, her early works were centered on the

formal figure of a woman, and in the mid-term, established many monuments and statues as a national project. Besides, she attempted to create abstract works on the theme of love and motherhood. In the latter period, a series of works on the theme of motherhood and love, etc., were produced in the form of a semi-abstraction. This aspect is similar to the flow of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art history.

This study analyzed Youn Young-ja's works with the emphasis on her world of figurative and abstract works for expressing maternity. The researcher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and work that broadened the position of women in Korean sculpture art by examining the life and art world of Youn Young-ja.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to center in the <Gookjeon> and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art, and referenced materials such as Youn Young-ja's writings, interviews with Seokju Cultural Foundation Representative, newspaper, magazine, etc. Additionally, Youn Young-ja's work was studied based on referring to the associated literature of Youn Young-ja through the flow of Korean sculpture art history.

keyword

Youn Young-ja, Figurative and Abstract, Korea contemporary sculpture, Sculptor

논문요약

《국전》은 한국 현대 조각 미술에 중요한 작가를 배출하였다. 현대 조각 미술은 구상에서 시작하여 추상이 유입되었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한국 현대 조각 미술사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후는 이러한 한국 현대 조각 미술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러한 한국 현대 조각 미술사 성격은 윤영자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윤영자(尹英子, 1924-2016)는 당시 여성의 예술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조각 미술을 선도하였다. 윤영자는 사랑, 모성, 여성, 환희를 중심 주제로 구축하였다. 한국 현대 여성 미술에서 초기 그의 작업은 여인의 정형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작업하였으며 중기에는 국책 사업인 기념비 건립과 동상 다수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모성을 주제로 한 추상적 작품의 시도하였다. 후기에는 모성과 사랑 등을 주제로 한 연작 작품을 '반추상'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 현대 조각 미술사의 흐름과 유사하다.

본 연구는 모성에 대한 내면의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한 구상 및 추상 작품에 중점을 두어 분석 하였다. 연구자는 윤영자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조각 미술에서 여성의 입지를 넓힌 윤영자의 영향력과 작품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국전》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 조각 미술로 한정하고, 윤영자의 저서, 석주문화재단 대표와의 인터뷰,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또한, 그와 관련된 한국 조각 미술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윤영자의 작품을 한국 조각 미술사의 흐름을 기준으로 분석 및 연구하였다.

주제어

윤영자, 구상과 추상, 한국 현대조각, 조각가

1. 서론

1-1. 연구목적

4차 한국 근대 조각 미술의 시작은 1925년 일본에서 수학한 김복진(金復鎭, 1901-1940)이 국내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다. 당시 한국 문화가 남성 중심사회였던 점에서 유학과 미술교육은 남성 작가들에게 유리한 형태였다. 따라서 조각 미술사 역시 남성 중심으로 시작, 발전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 조각가의 활동은 쉽지 않았다. 한국 근대 조각 미술은 남성 중심적 발전과 더불어 서양 기법의 영향을 받아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형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각 미술은 재료 수급 등의 문제로 크게 부흥하지 못하였다.¹⁾

1922년 일제 강점기 중 일본의 '문화정치'라는 구호 아래 《조선 미술 전람회》가 개최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현대 미술사는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다. 1949년 해방 후 문교부의 고시로 《조선 미술 전람회》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후《국전》으로 표기)로 명칭이 변경되어, 첫 회 전시가 열렸다.²⁾ 《국전》은 각 분야 미술가들의 전국 규모의 전시 체제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정치적 신념을 심어주는 것에서도 그 의의가 있었다.³⁾ 여성의 의식 상승은 여성 작가들의 활동이 단순하게 사회 참여를 넘어 한국 미술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기 《국전》에서 입상한 여성 조각가 윤영자의 등장은 남성 작가 위주의 조각 미술계에 여성 작가군 등장의 시발점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석주 윤영자 연구는 한국 여성 조각 미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미술평론가 오광수(吳光洙, 1938-)는 윤영자의 작품에 대해 구상과 추상 사이라고 평하였다. 1세대 조각가에게 수학한 윤영자가 한국 전쟁 이후 활동을 하며 한국 현대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고민했던 흔적은 한국 현대 조각 미술사를 대변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조각 미술사를 기반으로 한국 현대 여류 작가 윤영자의 활동 및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한국 조각 미술의 대표 작가로 윤영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윤영자가 활동한 해방 이후와 윤영자의 작품에서 변화를 보이는 시기를 중심으로 1950년, 1960년, 1970년대 이후로 나눈다.

따라서 한국 현대 조각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윤영자의 작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변화의 추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고는 1949년 제1회 《국전》을 시작으로 한국 전쟁 이후 윤영자의 작품 활동이 왕성했던 1949년부터 2000년도까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초기 1950년대, 중기 1960년대, 후기 1970~2000년대 총 3기로 시기를 나누어 고찰한다. 연구자는 윤영자 작품의 경향과 사용한 재료, 표현양상 등을 중심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 양상과 한국 현대 조각 미술사의 유사점을 찾아 시대를 구분한다. 1950년대는 광복 이후 한국의 현대 조각 미술은 사회·경제적 한계로 인해 여성 작가의 진입이 어려웠던 시기로 여성 작가군의 등장은 현대 조각 미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1960년대는 국책 사업과 국가 정비 사업에 의해 다양한 기념비, 동상 등이 제작되면서 조각 미술이 활발한 부흥기를 갖는다. 1970년대부터 정형화된 조각 미술 경향에서 탈피하여 구상과 추상의 결합인 '반추상' 작품을 제작한다. 2000년대 후반까지는 작가의 의식과 사고가 작품을 통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다양한 논문, 언론매체와 회고록 등에 수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현대 조각 미술의 흐름을 연구한다. 조각 미술의 변화 속에서 윤영자를 초기·중기·후기로 분류하여 작품의 시대별 특징과 형태를 중심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고, 작품세계를 알아보려 한다. 현대 한국 조각 미술의 양상을 토대로 윤영자의 작품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한국 현대 조각 미술사는 구상으로 시작하여 추상이 도입된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한다. 이처럼 윤영자 작품은 크게 초기를 구상, 중기를 구상과 추상의 대립, 후기에는 구상과 추상의 혼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국 현대 조각 미술사의 흐름과 윤영자의 작품세계 변화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윤영자의 시대별 작품을 시기별로 고찰함으로써 한국 조각 미술사의 흐름을 반추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석주문화재단 대표와의 인터뷰, 작가의 저서, 전시회 도록 및 신문, 평론과 잡지 자료, 주요한

국 미술사 서적 등을 토대로 한다.

2. 본론

2-1. 한국 현대 조각

1950년대 한국 현대 조각 미술은 1세대 작가들에게 수학하거나 사사 받은 작가군의 등장으로 앞선 세대보다 작품이 다양해지며 발전된 양상을 띤다. 남성 중심의 동상·기념비 제작은 여성 작가의 합류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 현대 조각 미술은 크게 1950년, 1960년, 1970년 이후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 현대 미술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운영자 및 다양한 작가들이 1세대 작가들에 의해 수학하고 정형적인 양상을 그대로 수용·발현하며 한국 현대 조각미술사의 새로운 포문을 연다. 이후 추상적 작품이 도입되지만, 1960년대는 국가사업을 중추로 한국 현대 조각 미술이 발전한다. 1970년대는 조각 미술계가 다소 침체기를 경험하면서, 국책 사업보다는 작가만의 작품세계를 모색하고 시대 변화를 수용한다.

여성 작가들의 등장과 활동 범위의 확장은 1945년 이화여대 미술과와 1949년 홍익대 미술과 등의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이다. 1949년 첫 회 문을 연 《국전》이 개최되며 이 시기의 조각 미술은 정형적인 성격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국전》의 제1회 조각 부문에서 입상한 운영자를 시작으로, 한국 전쟁 이후 1954년 제3회 《국전》을 통해 본격화된다. 운영자는 1954년 《지상미협전》에서 구상 조각작품으로 미협위원장상을, 김정숙(金貞淑, 1917-1991)은 추상 조각작품으로 수상한다.

1950년대 한국 조각 미술은 구상과 추상에 대해 주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은 정형적이고 사실주의적인 경향이 6·25 전쟁의 경험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의식의 확산으로 기존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구상과 추상의 공존, 절충을 추구하는 표현 경향으로 발전한다. 1950년대 한국 조각 미술은 사실주의적이며 학문적인 표현양상을 특징으로 한다.

1960년대 현대 조각 미술은 추상과 구상이 혼재한

다. 1961년 정부가 문화재관리국을 설치하고,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며 다양한 유적의 성역화가 시작된다. ‘민족과 국가의 이념을 미술, 특히 시각 이미지와 연계하여 민족의 각성과 계몽운동을 도모하는 사업’⁴⁾이 진행된다. 이는 국가적인 통치행위의 일부로서 전통성 계승과 국민을 통합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의해 기념비와 동상 등이 다수 제작되었으며 당대 활동하는 조각 미술 작가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당시 여성의 활동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여성 작가 단체인 영란회(가칭)⁵⁾, 여류 조각가회 등이 결성되었고, 협회전 및 국제전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다수의 젊은 여성 작가들이 《국전》에서 수상하여 주목 받았다.⁶⁾

1970년대에는 구상형태의 조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한국 조각 미술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작가들은 인체를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형상이나 추상적 표현에 집중하는 양상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다소 침체에 접어든 한국 조각 미술은 한일 조각전을 계획하거나 해외 조각전 및 국내·외 조각가들을 초청하여 전시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와 발전을 꾸준히 모색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전》은 많은 출품작으로 인해 봄, 가을 2회로 개최 시기를 나누어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국전은 작품의 질적 하락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1970~80년대 당시 국전에 심사위원으로 운영자, 김정숙 등 여성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 중 1976년 운영자의 심사평에 의하면 “역작이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웠다”⁷⁾고 하며 “획일적인 작품 경향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사지만 모방작품이 많았던 것과 다루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석조 목조 작품이 덜 나온 점”⁸⁾ 등 당시 《국전》의 아쉬운 점에 대해 피력했다. 이후 《국전》은 1981년까지 개최되다가 1982년 《대한민국 미술 대전》으로 명칭과 제도가 개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표현의 자유와 그 다양성의 공존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⁹⁾

1970년대 들어오면서 여성 조각가들은 《한국여류조각가협회》를 창설한다. 당시 《한국여류조각가협회》는 여성 조각가들이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1980년대는 여성 작가전시회가 다양해지고 개인전 못지않게 단체전도 활발해지면서 “여성 작가의 전시회가 풍성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¹⁰⁾ 여성 작가들의 활동 범위 역시 광범위해졌다. 또한, 이 시기에 윤영자는 ‘석주문화재단’을 설립하며 여성 예술인들을 후원하고 신진작가를 발굴하여 후학 양성을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여성 미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회 전체의 현실 모순에 대한 인식이 성 모순에 눈을 돌리”며 이러한 양상이 여성 미술 운동의 근간으로 작용했다.¹¹⁾ 또한, 다양한 재료와 소재의 활용으로 미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며, 이 시기 한국 조각은 질적 팽창과 성숙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설치, 영상 미디어의 확산도 조각 개념에 대한 위기를 경험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조각의 정체성은 위기를 맞이하며 가변적이고 공간장악력이 강한 설치미술의 붐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며 회화, 조소, 도자 등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조각작품이 등장했다.

2-2. 윤영자의 생애와 작품분석

2-2-1. 윤영자의 생애

윤영자는 해방 이후 한국 조각 미술계에서 여성 작가군의 등장을 알린 작가로서 의의가 있다. 윤영자는 1924년 2월 21일 서울 출생으로 윤경렬(尹京烈, 1916-1999)에게 미술의 소질을 인정받았으며, 윤효중(尹孝重, 1917-1967)으로부터 조각을 사사 받았다. 윤효중은 1949년 홍익대에 미술학부를 설립하여 미술학 부장으로 조각을 지도했다. 윤영자는 1949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가 창설되던 해 입학했다. 1949년 제1회 《국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수상하였으며, 11월《국전》에서 본격적인 작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¹²⁾ 그러나 한국 전쟁 발발로 급작스럽게 학업을 휴학하고 피난길에 오르며 당시 제작 중이던 어머니의 흉상과 대형 부조 작품을 망실했다. 흉상은 미완성작으로 일부 작품은 사진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윤영자는 구상작가로서 1949년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1954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한국 전쟁 휴전 이후 복학하여 1954년 11월에 제3회 《국전》에 〈여인상〉을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을 받았다. 미술계에 이채

(異彩)를 보여준 작품¹³⁾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지상미협전》에서 미협위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대회에서 인정받았다. 특히 문교부장관상의 수상은 주목받는 여성 조각가로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1955년 홍익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한 후, 후학양성을 위해 아동 미술 연구소¹⁴⁾를 개설하여 아동 미술 교육을 연구하였고, 미술 교사로 청소년의 교육자로서 경험을 쌓았다. 숙명여고와 경기고등학교에 각각 2년간 교사로 재직하였고, 1962년《국전》의 심사위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후학양성과 한국 조각 미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작가의 삶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윤영자는 한국 여성 작가의 세계화에 앞장섰는데, 1981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¹⁵⁾ 특히 윤영자는 1983년 1월 여류 조각회 <동경전>과 1982년 7월 <한일조각전> 개최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¹⁶⁾ 동경전에서 한국 여성 조각가의 작품을 알리며, 이후 아시아 현대 미술교류회 6월 공모전에 초대받는 등 한국 여성 작가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영자는 교육자로서 활동을 이어오다가 석주미술상을 창설하는데, 이는 여성 화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¹⁷⁾ 1980년대 중반에는 《한국여류조각가협회》 회장직을 맡아 여성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했다.

윤영자는 아동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경험을 쌓고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작가의 어려움 및 작가양성의 필요성을 깨닫고 석주문화재단을 창설하였다. 석주문화재단의 주요 활동은 <석주미술상>과 <석주미술 특별상>, <석주 선정작가전>으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 24회에 걸쳐 21명의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여 수상했다. 석주문화재단에서는 2년에 한 번 회화, 입체,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여성 작가를 발굴한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열의와 탁월한 재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가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는 데 수상의 목적이 있다.

2-2-2. 윤영자의 작품분석

윤영자의 작품은 초기(1950년), 중기(1960년), 후기(1970-2000년)로 분류할 수 있다. 초기 윤영자는 구상

작가로 시작한다. 작품의 형태가 분명하며 곡선을 활용하여 곡면의 부드러움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초기 작품은 인간의 구상형태를 중심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다. 중기 작품은 구상과 추상이 혼재된 경향이 짙다. 기념비와 동상을 동시에 제작하던 시기로 공공 미술 영역에서는 추상성보다 구상적 표현이 중심이 되지만, 개인작품에서는 추상성을 강조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후기에는 초기와 중기의 사실적이고 정형화된 이미지를 담기보다는 곡선과 선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구상과 추상이 병행되는 작품을 제작한다.

2-2-2-1. 초기

홍익대학교 재학시절 구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1949년 윤영자는 작품 <수:首>¹⁸⁾(그림1)은 제1회 <국전>에 입선하며, 한국 여류 최초의 여류 조각가로 기록되었다.¹⁹⁾ 당시 윤영자의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장래를 촉망할 수 있는 작품”²⁰⁾이라고 평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윤영자는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그림1). 1949년에 제작된 <어머니>와 <여인상>은 단순한 여성의 흉상이 아닌, 고개를 들고 직관하는 여성의 형태로 대상의 당당한 내면을 표현했다. 1회<국전>에 출품한 <여인상>은 (그림1)로 추정된다.



(그림 1) 윤영자, <수:首>, 1949, 제1회 <국전> 수상작



(그림 2) 윤영자, <여인상>, 140×50×80cm, Plaster, 1954, 제4회 <국전> 문화부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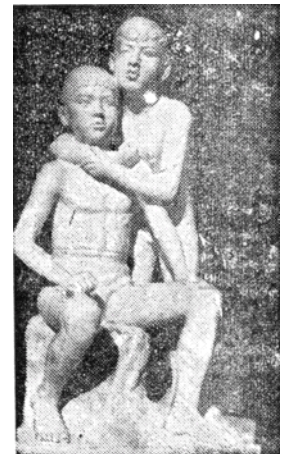
주요 작품인 1954년 제4회 <국전>문화부 장관상을 받은 <여인상>(그림2)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인 김환기는 “인체의 세부묘사에 흐르지 않고 전체를 직관하는 태도”²¹⁾로 “공간을 차지하는 하나의 입체에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였다고 평하였다.²²⁾ 또한, 단아하게 앉아

있지만, 다리를 꼬고 있으며 정면을 응시함에 성숙한 여성성을 부각한다. 초기작에 대한 평이 입체감이 드러난다는 점에 그가 작업 과정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본질적 성격을 표현하고자 함이 주목할 만하다.

1955년 <지상미협전>에서 미협위원상을 수상한 <전진의 패기>는 두 주먹을 불끈 쥐 소녀가 두 발로 대지를 지탱하고 있으며, 오른팔은 머리 위로 왼팔은 대지를 향해 있다. 두상의 시점은 좌측 발의 뒤꿈치를 향하고 있으며, 상체의 흉부부터 엉덩이가 좌로 반동하는 자세로 역동적이며 당당한 여성의 자세를 표현하여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준다(그림3).



(그림 3) 윤영자, <전진의 패기>, 140×50×80cm, Plaster, 1954, <지상미협전>, 미협위원장상



(그림 4) 윤영자, <두 형제>, Plaster, 1956

1956년 <두 형제>(그림4) 작품은 신문을 통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찾기 어려우며 작가의 이름, 작품 양상을 통해 윤영자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작품은 아카데미한 성격으로 인물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인체와 두상에 관한 해석과 표현이 대담하며, 형제를 표현함이 입체적이고 전체적인 시선을 통해 작품 감상에 중점을 두게 한다.

작품 도판과 이에 대한 언론의 언급을 살펴보면, 형태가 뚜렷하고 선이 부드럽다. 또한, 인체의 태도와 표정의 시선 처리를 통해 작가가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함이 드러난다. 인체의 동작 묘사를 절제하고, 얼굴의 표정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작가의 표현이 뛰어난 것을 엿볼 수 있다. 당시에는 재료 수급이 어려워 석고

를 주로 활용하였다. 이후 인체를 곡선과 곡면 형태로 조각하여 안정감을 주며 운영자만의 개성 있는 작품 제작을 시도하였다.

2-2-2-2. 중기

운영자는 1963년《국전》의 심사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교육과 다수의 조각상, 벽화, 기념비 등을 제작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1959년 경희대학교 부속 유치원에 설치된 정원조각 작품 <환희>와 구리 구외수원지 분수조각을 시작으로 1962년 한국은행 상단 원형 부조, 1963년 <행주대첩비>, 1967년 마포대교 사자상의 불상사, 1967-9년 경희대 중앙도서관 11인 분수조각, 정문 상단 부조와 의료원 앞 <구호의 여신상>과 도서관 내 분수조각 <환희>, 1970년 <다산 정약용 선생>, 1973년 <소양강댐 기념탑> 등을 제작 설치하였다. 운영자가 제작한 동상, 기념비 등은 그 형태가 분명하고 휴상, 동상 등으로 앞선 시기 작품보다 인체에 대한 해석과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행주대첩비> 전체조형도

<행주대첩비>권율장군과 병사들²³⁾

(그림5) 운영자, <행주대첩비>, 9,000cm, 화강석, 1963

1963년 건립된 권율 장군의<행주대첩비>(그림5)는 그 형태가 뚜렷하고 웅장하다. 건립 기간은 1961~63년이다. 그의 저서 ‘운영자 삶과 예술(2011)’에 의하면 건립 당시 12명이 서류를 제출했다. 작가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여 투시도를 심사하였으며, 운영자가 당선된

다.²⁴⁾ 당시 여성 조각가들이 남성 조각가들보다 입지가 적어 운영자의 기념비 건립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행주대첩비>의 높이는 무려 90m에 이를 만큼 거대했고, 화강석을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대형 조각을 옮길 줄 아는 기술자의 수가 적어 작업 후반기 석공들이 작업 중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행주대첩비>는 권율 장군과 그의 병사들이 왜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화강석 조각하였으며 표정과 행동이 모두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설치된 네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기념비는 정면에서는 권율 장군과 그의 병사들의 모습을 나타냈고, 좌·우 측면에서는 전투의 한 장면을, 뒷면에는 백성들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특히 중앙에 권율 장군의 표정을 분명하게 묘사하여 전쟁에 임하는 권율 장군의 패기를 드러냈다.

1970년대 서울신문사 주관으로 제작된 1970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동상은 당시 기념비나 동상의 설치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동상의 제작방식은 삼면을 비닐로 막았으며, 몸체를 동으로 뜯 때는 삼등분 하여 제작하였다. 석고형에서 흙을 정리하고, 얼굴상도 형안에 직접 들어가서 손질하여 온전한 구상 조형물로 정약용 선생의 품위와 표정과 옷의 형태를 세심하게 표현하였다.



<소양강댐 기념탑> 정면²⁵⁾



〈소양강댐 기념탑〉
여성 조형물²⁶⁾

(그림6) 윤영자, 춘천〈소양강댐 기념탑〉, 2,200cm, 화강석, 1973



〈소양강댐 기념탑〉
남성 조형물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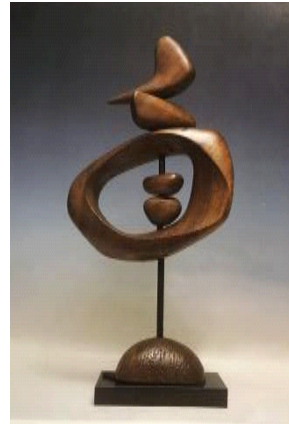
(그림6) 윤영자, 춘천〈소양강댐 기념탑〉, 2,200cm, 화강석, 1973

1973년 제작된 춘천〈소양강댐 기념탑〉(그림6)은 높이가 22m이며, 화강석을 이용하였다. 각 조각은 3등분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으며, 작품연결 방식은 이를 올라가 붙여서 제작하였다. 춘천 소양강댐에는 인체의 곡선과 유연함을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상단부에 남성과 여성의 상이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양손을 위로 뻗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신체의 특징을 선명하게 표현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상 뒤로는 수레와 추상적 조형이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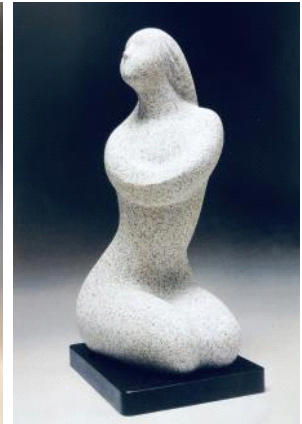
2-2-2-3. 후기

후기 윤영자는 조각 미술계가 다양한 추상 조각 미술이 소개되고 제작되던 시기로, 작가로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 모습이 드러난다. 기존의 구상적 경향을 벗어나 추상 조각을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또한, 그 명칭이 이후 구상과 추상이 혼합된 양상의 시리즈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윤영자 개인작품의 경향은 구상조각의 틀에서 벗어나 추상과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작가의 재료 수급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1960년 제작한 작품 〈울〉(그림7)은 나무와 브론즈(Bronze) 등의 새로운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특히 〈울〉은 인체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구상형식에서 곡선과 직선의 절묘한 조합과 원형의 형태는 추상적 표현을 시도했으며, 여성의 자궁을 형상화하였고 고요한 흐름을 표현하였다.



(그림 7) 윤영자, 〈울〉,
20×12×59cm, Wood,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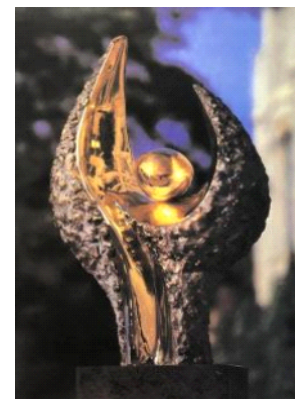


(그림 8) 윤영자, 〈기다림〉,
42×32×70cm 화강석,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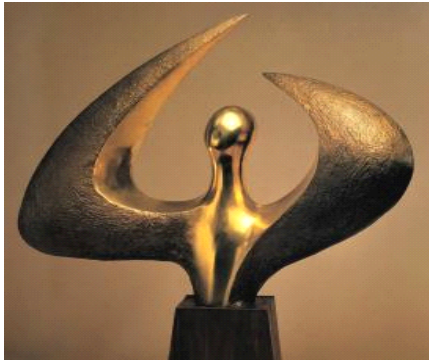
1958년과 1959년부터 시작된〈애〉와 〈기다림〉 시리즈 작품은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초기 작품이 사실적인 묘사와 정형화된 구상조각으로 인체를 조각하였다면 후기작품부터는 인체의 직접적인 표현을 절제하고 곡선과곡면으로 유연하며 포근한 느낌이 드는 조각상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인체 표현을 단순화시켰으며, 생명주의적 모성을 드러내면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최소한의 형태로 표현한다. 특히 〈기다림〉(그림8) 작품은 여성의 감싸고 있는 팔과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애트한 상태를 더욱 절묘하게 나타낸다. 이를 시작으로모자에 대한 여성의 모습을 담은〈애〉, 〈울〉, 〈정〉, 〈기다림〉 등을 연작하였다.



〈애〉, 39×17×60cm,
대리석,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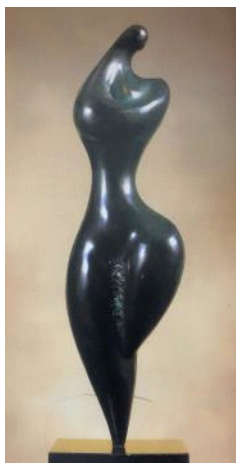
〈애〉, 45×29×61cm, Bronze,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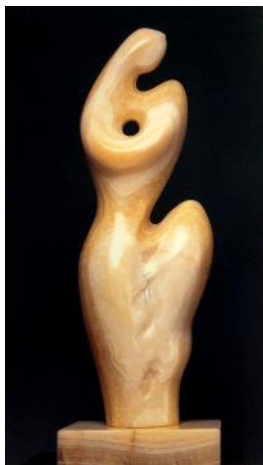
〈애〉, 71×54×14cm, Bronze, 1984

(그림 9) 윤영자, 〈애〉 시리즈

여성의 자궁을 형상화한 〈애〉 시리즈(그림9) 작품은 ‘모정’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모성애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한 여인이자 부모인 여성을 새로운 생명체를 포괄하고 보호하는 형태로 취했으며 생명주의에 대한 형태를 나타냈다. 곡선과 곡면의 형태로 안정감과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을 추상적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대리석과 브론즈 소재를 이용하여, 재료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여성의 외유내강으로 표현했다. 오광수 평론가에 의하면 ‘〈애〉시리즈는 좌우대칭의 형태가 아기를 안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기인한 것’²⁸⁾이라고 평한 것처럼 모자의 사랑과 애정이 단단하게 결속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 작품들은 개인전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모성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애〉시리즈는 이후 90년부터는 자식을 품거나 같은 곳을 응시하거나 하는 형태로 진보된다.



〈정〉, 19×14×63cm, Bronze, 1973



〈정〉, 28×16×65cm, 대리석, 1982

(그림 10) 윤영자, 〈정〉 시리즈

〈정〉 시리즈(그림10)는 아이를 품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형상한 작품으로, 아이를 품은 여성이 아이를 보호하며 느껴지는 감정을 다루고 있다. 날카롭거나 모남이 없이 순환과 원만함,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드러낸다. 작품 상부에 원형 구조가 순환의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대리석으로 제작하며 대리석 특유의 질감을 이채롭게 표현된다.

후기 운영자의 작품세계는 구상과 추상을 포괄하여 표현하는 작품이 다수이다. 그의 작업은 모난 부분이 없이 곡선과 곡면의 형태로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을 추상적인 작품을 제작했다. 재료의 특징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했다. 구상작가로 시작한 운영자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를 단순화하여 유연한 원형과 곡선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상과 추상의 결합한 ‘반추상’ 형태로 작품의 경향이 바뀌게 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한국 현대 조각미술사 중 광복 전 1세대에게서 수학한 여류 조각가로 정의되는 석주 운영자를 연구하였다. 그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조형성을 탐구하고 광복 이후 활발하게 활동한 1세대 여류 조각가의 업적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남기고자 하였다. 한국의 조각 미술은 구상과 추상의 사이에서 작가 개인의 창의력과 조형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며 한국 전쟁 이후 크게 발전하였다. 경제 발전에 따른 물자수급의 원활함과 다양한 해외 미술사의 유입, 활발한 해외로의 진출은 한국 현대 조각 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 여성 작가들의 출현과 활동은 다양성을 넓혔으며 한국 현대 조각 미술의 발전과 세계화 되었다.

《국전》을 중심으로 1세대 여성 작가군의 등장은 한국 조각미술사의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한 축을 이루었다. 여성 작가군의 등장은 한국 조각미술사의 다양한 표현의 변화를 가져왔다. 1세대 여류 조각가 운영자는 구상조각을 시작으로 1950년 전·후반 초기 《국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운영자의 등장은 현대 조각 미술의 시대적 흐름에 변화를 모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전》심사에 참여하고 여류 조각의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석주 미술재단을 창설하

여 여성 작가들을 후원하여 후학양성에 기여하였다.

작가 내면의 세계를 다양한 재료와 표현방식으로 제작한 윤영자 작품의 초기는 구상적 성격으로 작품세계가 구축되었으며, 중기에는 정형화된 구상적 기념비와 동상 제작과 함께 추상적인 경향의 개인작품으로 구축되었다. 후기에는 구상과 추상이 혼용된 '반추상' 작품이 제작되었으며, 작품의 주요 주제는 여성 인체의 아름다움과 모성애였다. <애>, <여인상>, <기다림>, <정>, <울>등 유사한 주제를 가진 연작에서는 윤영자만의 순환과 포근함의 조형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여성 조각가 1세대인 윤영자를 통해 한국 조각 미술계에서 여성 작가의 계보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1) 심연옥, 『한국미술사를 보다1』, 리베스쿨, 2015, p. 232.
- 2) 이하 《대한민국미술전람회》는 《국전》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 3)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2013, p.117.
- 4) 김영나, 『1945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 미진사, 2020, p179.
- 5) 「여류화가 그룹 태동」, 동아일보, 1958.10.12, 6면.
- 6) 「젊어지는 한국미술계」, 동아일보, 1962.10.04, 6면.
- 7) 「수준 향상 속 연작 없어- 윤영자」, 경향 일보, 1976.09.23, 7면.
- 8) 「특출 없는 평년작 국전- 윤영자」, 동아일보, 1978.09.23, 5면.
- 9) 박용숙 외 2, 「민족·민중미술의 확산과 전망」, 월간 미술, 1989, 10, p.88.
- 10) 「여성 작가전시회 러시」, 매일경제, 1988.05.26, 5면.
- 11) 「여성 미술 발자취와 가능성... 한원 갤러리 그림 마당 민 전시회 눈길」, 한겨레, 1991.09.27, 9면.
- 12) 「국전 풍경」, 경향신문, 1949.11.25.~26, 2면.
- 13) 「빛나다! 민족의 문화 제삼 회 전국미술전 어제 개막」, 동아일보, 1954.11.02, 2면.
- 14) 신문지면을 통해 어린이들의 미술 공부를 지도할 곳을 개설한다. 당시 서대문구 신문로에 위치하여 있었으며 이종무, 천경자, 윤영자, 김숙진 선생이 이곳에서 교육할 예정임을 알렸다. 당시 미술계에 중요한 미술가들의 경제활동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 아동 미술 연구소 이달부터 열린다고」, 경향신문, 1959.02.01, 1면.
- 15) 「미술계 인사들도 해외 활동 러시」, 동아일보,

- 1981.07.10, 6면, 「기지개 켜는 미술계」, 매일경제, 1983.03.08, 9면.
- 16) 「여류 조각가 회장 윤영자씨 한·일 조각 협의하러」, 경향신문, 1982.07.15, 3면.
- 17) 「석주미술상 제정한 윤영자씨 여류화가 사기진작 보탬 됐으면」, 매일경제, 1989.4.3, 3면.
- 18) 작품<수:首>(그림1)은 후에 <여인상>으로 작품명이 변경되었다.
- 19) 바른손, 『歷代 國展資料集: 第1回~第26回』, 바른손, 1984, p.11.
- 20) 윤영자의 회고록 등을 통해서 1954년 문교장관상만을 확인할 수 있으나 1949년 11월 25일과 26일 신문 기사에는 '여학생' 윤영자의 작품에 대한 심사평이 게재되어 있다. 본 기사에는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총평에서는 윤영자씨 여학생이 장래를 촉망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본격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국전 풍경」, 경향신문, 1949.11.25.~26, 2면.
- 21) 「미술회화의 명랑성- 제3회국전 유화실 소감-김환기」, 경향신문, 1954.11.7, 4면.
- 22) 「훈훈한 소녀의 생기가 도는 이 좌상앞에」, 동아일보, 1954.11.04, 3면.
- 23) <http://www.doopedia.co.kr/index.do>
- 24) 윤영자, 『윤영자 삶과 예술』, 월간 아트프라이스, 2011, p.12.
- 25) <http://www.doopedia.co.kr/index.do>
- 26) <https://blog.naver.com/sarangmom11/220783207476>
- 27) <http://www.doopedia.co.kr/index.do>
- 28) 윤영자, 『윤영자 작품집2』, 월간 미술세계, 2010, p.21.

참 고 문 헌

- 김영나, 『1945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 미진사, 2020.
- 심연옥, 『한국미술사를 보다1』, 리베스쿨, 2015.
- 윤영자, 『윤영자 삶과 예술』, 월간 아트프라이스, 2011.
- 윤영자, 『윤영자作品集2』, 월간 미술 세계, 2010.
-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2013.
- 바른손, 『 歴代 國展資料集: 第1回~第26回』, 바른손, 1984.
- 박용숙 외 2, 「민족·민중미술의 확산과 전망」, 월간 미술, 1989, 10.
- 「기지개 켜는 미술계」, 매일경제, 1983.03.08.
- 「국전 풍경」, 경향신문, 1949.11.25.~26.
- 「미술계 인사들도 해외 활동 러시」, 동아일보, 1981.07.10
- 「미술 회화의 명량성- 제3회 국전 유화실 소감-김한기」, 경향신문, 1954.11.7.
- 「빛나다! 민족의 문화 제삼 회 전국미술전 어제 개막」, 동아일보, 1954.11.02.
- 「서울 아동 미술 연구소 이달부터 열린다고」, 경향신문, 1959.02.01.
- 「석주미술상 제정한 윤영자씨 여류화가 사기진작 보탬 됐으면」, 매일경제, 1989.4.3.
- 「수준 향상 속 연작 없어- 윤영자」, 경향 일보, 1976.09.23.
- 「여류 조각가 회장 윤영자씨 한·일 조각 협의하러」, 경향신문, 1982.07.15.
- 「여성 작가전시회 러시」, 매일경제, 1988.05.26.
- 「여성 미술 발자취와 가능성… 한원 갤러리 그림 마당 민 전시회 눈길」, 한겨레, 1991.09.27.
- 「여류화가 그룹 태동」, 동아일보, 1958.10.12.
- 「짧어지는 한국미술계」, 동아일보, 1962.10.04.
- 「컷-두 형제, 윤영자작」, 동아일보, 1956.02.15.
- 「특출 없는 평년작 국전- 윤영자」, 동아일보, 1978.09.23.
- 「훈훈한 소녀의 생기가 도는 이 좌상 앞에」, 동아일보, 1954.11.04.
- 「5번째 개인전을 갖는 조각가 윤영자씨」, 매일경제, 1991.06.01.
- <http://www.doopedia.co.kr/index.do>
- <http://bolg.naver.com/sarangmon11/220783207476>

